

제1차 최고경영자 세미나

① 제주 세미나를 다녀와서

글·서병우 대표이사 동아전기공업(주)

② 21세기의 도전과 표준화

글·주덕영 원장 기술표준원

③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예상행위 유형

글·오성환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④ 산업재산권과 기업과의 관계

글·김명한 상근부회장 (사)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⑤ 무한경쟁시대의 경영패러다임

글·백영훈 원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

협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제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금년도 제1차 전기용품제조업체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총 45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는 성공리에 끝마쳤으며, 여기에 4명의 강사들이 강의한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여러분의 많은 참고 있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주 -

제주 세미나를 다녀와서

글 · 서병우 대표이사 동아전기공업(주)



한반도 남서해상에 있는 한국 최대의 섬인 제주도(濟州道)는 주변에 산재하는 유인도와 무인도로 구성된 도이다. 제주도의 명칭은 도이(島夷)·도영주(東瀛州)·주호(州胡)·탐모라(耽牟羅)·섭라(涉羅)·탁라·탐라(耽羅)·제주(濟州) 등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불려왔다. 영주지(瀛州誌)·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誌) 등에 의하면 3성(三姓:高·梁·夫)의 개벽설화(開闢說話)가 있으나 확실한 연대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고을나(高乙那)의 15대손 고후(高厚) 3형제가 신라에 입조(入朝)하여 탐라의 국호와 벼슬을 받아 와서 탐라국(耽羅國)을 개국하였다 한다. 그후 476년에 백제와도 친교를 맺었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662년에 신라의 속국이 되었다. 그후 다시 938년에 고려의 속국이 되었으며, 1211년에 와서야 제주라고 개칭되었다.

조선조에 이르러 1895년에 제주를 관찰부(觀察府)로 승격하였다. 1897년 다시 제주목(濟州牧)으로 환원되었고 1906년에 목사를 폐지하고 군수를 두었다. 1915년 도사제(島司制)로 개편하고 제주도가 되어 전라남도(全羅南道)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해방 후인 1946년 도제(道制) 실시로 전라남도 관할 하에서 벗어나, 도(道)로 승격된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다.

- 편집자주 -

제주도에 전승되는 모든 민요에는 육지의 것과 달리 그 특색이 있다. 제주도에는 토속적인 노동요(勞動謠)가 특히 많은데, 이것은 육지와는 다른 생활습속과 환경 등으로 인한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도민요에는 도민들의 타고난 음악성이 잘 드러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마 모는 소리》, 《밭 밧리는 소리》, 《툇질 소리》, 《낭개는 소리》, 《출 베는 소리》, 《고래 고는 소리》, 《검질 매는 소리》, 《진토 소리》, 《달구질 소리》, 《방아 짚은 소리》, 《마당질 소리》, 《자통자통》, 《상여 소리》 등이다. 노동요의 대부분이 전음 5음계(全音五音階)이고, 일부가 주요음 3음으로 치우쳐 계



면조적(界面調的)인 조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적한 고도, 역사적인 섬 특히 바다가 바로 보이는 서귀포에서 세미나가 열리는 것에 환영하며 기꺼이 참가하게 되었다.

불과 1여년전의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암담하기만 했던 세월이었다. IMF란 험거운 경제환경에서 상처투성이의 동아전기를 겨의 만용에 가까운 투지로 인수하고 나서야 '아차,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는 후회와 또 한편으로는 도전의 투지를 불태우면서 한 해가 지나갔다. 생소한 업종에 무지한 사람이 의욕만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고마운 분들의 격려와 조언으로 차츰 궤도를 찾기 시작한 것 같다. 특히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임직원들께서 성의있는 조언과 정보제공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아전기와 같은 규모가 적은 업체의 취약점은 왜소한 조직력과 빈약한 기술력, 거기에도 자금력도 열악하다 보니, 어려움만 고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제 시장 개방으로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국 제품과 개도국들의 값싼 제품들과 한판 승부를 해

야 하니 암담하기까지 하다.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기술표준원,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전기연구소 같은 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크게 의지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김명한 부회장의 산업재산권과 기업과의 관계 강의는 이 분야에 무지한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 관심있는 강의였으며 주덕영 기술표준원장의 21세기 도전과 표준화 강의는 우리같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는 품질개념과 표준화의 현주소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백영훈 박사의 무한 경쟁시대의 경영 패러다임 강의는 노경제학자의 열정과 한국경제발전 초과과정의 산 증인을 보는 것 같아 감명 깊었다.

어쨌든 복잡한 격무에서 일시적이거나 떨어져 나와 명강사의 명강의와 동종업계 또는 유사업계 경영인들을 사귀는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 좋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가끔 마련하여 잡다한 업무에 찌든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사고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21세기의 도전과 표준화

글·주덕영 원장 기술표준원

세계 최빈국에서 OECD 회원국으로까지

- 선진국이 되려는 강한 염원
- 성장의 방법은 일본에 Benchmarking
 - 일본 국가규격(JIS)과 일본 사내 규격의 모방

21세기에의 도전

- Single Global Market에 대응
 - 세계표준(Global Standards)의 형성
- 지식 및 기술기반시대로의 진입
 - 기술의 발전과 Digital Economy의 등장
 - IT의 산업화와 산업의 IT화 균형발전
- 금융 및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 투자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순식간에 자금이동
- 영어권으로 경제 성장의 축이동
 - 성장의 선두는 아시아 경제임
- 자주기술에 의한 경쟁력 위기의 극복
 - 기술개발 투자는 선진국 수준이나 기술경쟁력은 개도국
 - 기술인프라의 구축 시급(표준화는 핵심의 하나)

세계적인 표준시대의 등장과 그 대응

-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 도래
 - 선진국은 신기술의 세계규격화로 시장 선점
 - 세계 규격의 적용범위는 계속 확대
 - 국가간 상호인정 확산 움직임

- KS규격을 5년내에 세계 수준으로 격상

현 재	
○ JIS의 모방	○ 세계규격과 일치화
○ 내수규격과 수출규격의 이원화	○ 새로 제정되는 세계규격 수용
○ 120,000쪽 분량(10,000종)	○ 우리 신기술을 세계규격에 반영
○ 세계규격, 대기업수준의 75%	○ 500,000쪽 검토
	○ 세계규격, 대기업수준의 100% 달성

- 정부 각부처 기술기준을 KS로 수용
 - 19개 부처 49개 법령 18,600종

- 국가 표준화 수요조사 실시
 - 년 3,000개 이상 기업, 대학, 연구소 대상

- 측정표준 체계의 확립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정점으로

- 다자간, 양자간 상호인정에 대비
 - 한국시험소인정기구(KOLAS)중심으로 대응
 - 민간인증 기관의 육성(시험성적, 교정, 제품)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예상행위 유형

글·오성환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행위 유형	행위내용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남용(확인, 추천 등)에 의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 할인권을 발매한 “갑”극장이 상영중인 “A”외화의 연장공연을 위해 제출한 연장공연 신고서의 협회확인요청에 대해 동신고서에 일반단체요금, 회원권 등 할인요금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확인을 거부한 행위(의결 제86-10호) - 사업장소의 위치 및 수를 제한하는 행위 ◎ 서적조합이 신규로 가입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장소의 이전을 제한한 행위(의결 제85-15호) - 광고회수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유가공동체가 중앙일간지 등에 구성사업자의 우유제품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게 한 행위(의결 제89-8호) - 판촉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 LPG안전관리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판촉을 위한 선전이나 선물제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권고 86-21호) -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약사법개정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폐문을 결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의결 93-220호)

행 위 유 형	행위내용
경쟁제한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에 관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가격 등 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 타이어수리업단체에서 협정가격표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타이어수리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권고 제91-11호) - 공통적 가격 산정방식의 설정행위 ◎ 주류도매업단체가 맥주의 용도별 도매마진율을 결의한 행위 (의결 제89-79호) - 수수료, 할인액 등의 결정행위 ◎ 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격과 가맹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미리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고 준수하도록 한 행위 (의결 제92-16호) - 입찰담합행위 ◎ 레미콘단체가 대형수요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8% 이상으로 하고 일반 공고물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찰자 및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한 행위 (권고 제88-33호) ○ 수량에 관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고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착화탄공업단체가 구성사업자별로 착화탄생산량을 배정한 행위(의결 제92-146호) - 설비의 가동을 제한하는 행위 ◎ 제지공업단체가 연간 3회에 걸쳐 판지의 적정재고량을 유지를 위한 조업단축을 결의하고 시장에서의 공급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한 행위(명령 제82-6호)

행 위 유 형	행 위 내 용
경쟁제한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한도를 설정하는 행위 ◎ 석유가스유통단체가 구성사업자간 판매물량제한을 위해 제품별 비율판매제를 채택키로 결의한 행위(권고 제82-14호) ○ 거래조건에 관한 행위 -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양곡가동단체가 가공대상물의 운송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가공대상물을 경운기 또는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범칙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행위(권고 제86-1호) - 대금지급방법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석유대리점단체가 거래상대방별 외상기간에 관한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상향조정키로 한 행위(의결 제89-17호) ○ 거래상대방 제한에 관한 행위 - 거래상대방을 할당하는 행위 ◎ 관광단체가 기본상품을 개발하여 협약업체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업체가 아닌 여타 여행업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행위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협약업체가 아닌 여타 여행업체 등에게는 전세버스예약을 거절하도록 한 행위(의결 제92-98호) -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 연식품공업단체가 연식품제조용 대두의 판매지역을 분할한 행위(권고 제90-8호)

행 위 유형	행 위 내 용
경쟁제한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 설비규모를 정하거나 설비도입을 제한하는 행위 ◎ 아스콘 사업단체에서 이사회가 각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공장 신설을 절대 억제토록 의결한 행위 (의결 제92-157호)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가판매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급 등을 제한토록 하는 행위 ◎ 서점조합이 학원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된 참고서를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전구성사업자가 학원에 참고서를 공급하지 말도록 협조요청토록 하고 협조하지 않는 도매상과는 거래를 중단하도록 결의한 행위 (권고 제89-10호) - 재판매가격의 유지를 강제하는 행위 ◎ 화장품공업단체가 각 구성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전문점에게 권장소비자가격으로부터 20%내의 범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하는 행위 (의결 제91-66호) -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배척하도록 직,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행위 ◎ 슈퍼마켓단체가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 (의결 제91-41호)

산업재산권의 개요

글 · 김명한 상근부회장 (사)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산업재산권의 의의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상표권을 포함시켜 총칭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어원은 프랑스어인 “La Propriete Industrielle”로서 이것이 영어의 “Industrial Property”로 바뀌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동안 '80년도까지 공업소유권이라고 불리던 때도 있었다.

산업재산권의 영역과 재산권

산업재산권제도는 공업분야외에도 상업, 농림업, 수산업 및 광업 등 전산업 분야에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영위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서 산업재산권이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산업재산권은 저작권과 함께 인간의 정신적 노작의 결정체인 창작에 대하여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 부여해주는 독점권으로서 통상의 동산이나 부동산

과 달리 그 형태가 없음으로 해서 무체재산권이라 불리며 무체재산권중에서도 국가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산업적 무체재산권인 바, 앞에서 말한 저작권과 함께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이라고도 불리며 오늘날은 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 칩보호·데이터베이스·동물신품종·영업비밀·캐릭터 등의 신지적재산권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성

산업재산권은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국제성이 강한 제도로서 다른 제도에 비해 국가간에 제도상의 차이점이 적은 반면, 각 나라사이에 제도상의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는 결국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자기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예:미국특허법상의 선발명주의)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하여 미국 국민의 상표보호와 물질특허제도의 채택을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

서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하여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성에 기인한 것이다.

국익으로서의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성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도입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외화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기술도입의 대가로 지불하는 소위 로열티(Royalty)라는 것은 바로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사용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UR TRIPs 협상의 타결로 인해 산업재산권제도는 앞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넓혀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세계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산업재산권의 보호취지

산업재산권과 국가산업

일정한 기술적 창작발명을 한 자가

그 기술내용을 국가, 사회에 공개, 제공 하는 대가로 국가는 이들 창작자에게 그 창작기술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부여하는 권리가 곧 산업재산권(상표권 제외)이다. 즉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창작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정신적, 육체적 노력과 경비 및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창작기술을 아무런 대가나 혜택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면 새로운 기술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창작기술을 사회에 공개하여 과학기술의 향상에 기여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과 활용을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산업재산권제도의 목적이다.

창작자에게는 자기의 개발기술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그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한편, 일반국민은 산업재산권의 허여를 전후하여 공개된 창작기술에 의한 제품,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여 생활 수준의 향상을 누리는 외에 공개된 기술을 중복연구할 필요없이 그 기술을 한단계 높은 스스로의 기술개발에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에는 그 창작기술을 누구나 아무런 대가의 지불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산업재산권제도는 해당 권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

상표권과 신용보호

상표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과는 달리 「창작」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선택」으로서 일정한 상표 사용자에게 그 사용상태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독점 사용하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과 도용 등을 배제하여 줌으로써 그 상표 사용자가 상표를 매개로 구축하는 시장적 지위, 즉 신용을 보

호해주어 업무상의 신용이 유지, 증진되고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표의 선사용자의 판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출원,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상표의 독점적 사용을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는 자기신용의 유지를 위해 자기상품의 품질을 유지, 보증하게 되며, 그에 따라 일반수요자도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고, 부정경쟁의 소지를 없애주며 상품의 유통질서를 안정시켜 주고, 따라서 간접적으로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상표권 보호의 취지가 있다.

여기서 잠깐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합니다】

레이저전류 ➡ 여자전류

제자권선을 자화시키기 위해 흘리는 전류. 이 전류에는 철손전류와 자화전류의 두가지 성분이 있다. 변압기, 전압조정기 따위에서 여자를 하기 위한 전류이다.

1. 변압기의 경우 1차 단자에서의 역기전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교번자속을 철심 내에 만들기 위해 여자전류를 흘린다.
2. 동기기는 스스로 기동을 못하기 때문에 동기속도가 될 때까지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별개의 직류발전기에 의해 여자시일 때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무한경쟁시대의 경영패러다임

글 · 백영훈 원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우리는 새천년이 시작된 역사적 시점에서 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새천년을 설계하는 민족의 테마를 내걸고 새로운 국부창조를 위한 열기를 쏟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정책적 이념 위에서 내일의 풍요한 물질적 문명을 예언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경제는 지금 역사적 위기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경제발전의 엔진이 녹슬고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갈 경제체질이 쇠약되고 있다. 고도성장이나 압축성장의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고 지금 우리 경제는 보이지 않는 미증유의 시련과 불안 그리고 좌절감속에 파묻혀 가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세기가 갖는 물리적 시간의 의미를 역사적 차원에서 거듭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밀리니엄”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발전의 목표와 전략의 “아젠다”를 새로 설정해야 할 역사

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적 시간」과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세계사적 시간」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 일은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명제이다.

지금 한국경제에 침전되어 가고 있는 가장 심층적 불안은 한국적 자본주의에 대한 사상적 혼돈에 있다. 우리는 어떠한 자본주의적 가치관 위에서 내일의 국가경제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한 해 또는 다음 해의 경제상황 자체가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장기적 경제순환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이며 한국적 경제발전에 승화 될 것이냐에 있다.

우리의 반세기 역사는 세계사의 200년과 같다. 경제적으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제는 정보사회의 시대에 와있다. 우리의 건국사는 압축경제의 역사였다. 그만큼 구보의 역사였고 고성장의 역사였다. 회고해 보면 자랑스러운 50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성장의 속도에 정치발전도 사회정의도 시민의식도 따르지 못했다. 우리의 국부는 부정축재의 부나 다름없다. 부끄러운 반세기가 아닐 수 없다. 나라를 일으킨 한강의 기적은 붕괴된 역사의 성과요, 민족의 위기를 고취시킨 서울올림픽의 환희는 감금된 역사의 업적이다. 민주화의 승리도 결국은 독재가 일군 경제발전이 지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영욕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 반세기는 단기적인 역사의 척도로는 나라가 일어난 과정이지만 장기적인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과도기였다. 지름길로 달려온 편법의 역사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경제적 난국은 바로 지난 50년의 어긋난 도리가 침전물로 퇴적된 탓이다.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어 온 모든 분야의 비리와 모순이 쌓여 나라의 혈류를 경색시킨 것이다. 이제 지난 반세기동안 건국해온 방식으로는 나라가 내일을 열 수 없다. 오늘의 위기는 그런 경고다. 건국 50년에 때맞춘 대전환의 신호다. 절호의 기회다.

1천년의 지복의 해를 우리가 당대에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견한 일이

다. 우리는 2000년의 주인공이자 그 역사 현장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 성스러운 해를 함께 맞이하는 시대인이라는 것은 벅찬 축복이다. 세기의 대회전차에 동승한 운명적인 유대감과 시대적 공감을 갖게 한다.

새 밀레니엄의 기념이 단순히 커다란 달력장을 넘기는 소리뿐만 그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축제여야 하고 성사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의 계기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근세사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세번째의 대실패를 겪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첫번째 대실패는 1880년대로 소급해서 시작된다. 조선 말엽의 처참한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신산업사회를 열어가는 세계사 흐름에 역류하는 역사적 과오가 우리의 현대사를 얼룩지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맞은 두번째의 역사적 대실패는 8·15광복과 더불어 이어진다.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국가의 길이 열렸지만 우리의 정치는 절호의 이 기회를 우리 것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수많은 애국지사, 독립투사가 줄지어 환국했지만 민중의 싸움과 갈등이 극심하였고 마침

내는 국토가 갈라지고 6·25와 같은 엄청난 참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총체적 난국은 이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세번째 역사의 대 실패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세계경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어제의 대기업이 파산되고 새로운 벤처기업이 하루아침에 세계를 이끄는 제3의 산업혁명의 물결이 파도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지난날에는 세계 최대의 부자는 땅이나 황금, 석유 등 천연자원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상징되는 벤처기업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경제학의 원리가 지난날의 자본, 노동, 시장이론에서 지식기반이론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자본주의시대가 열린 것이다. 따라서 경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자본주의 체제도 지난 날과는

판이하게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내일의 한국경제를 이어갈 경제사상이 무엇이고 새로운 국부창조를 실현시킬 새로운 경제이론과 규범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역사적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올바른 역사의식 속에서 한국적 자본주의의 틀을 다시 짜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발전 과정에는 반드시 반성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 깊은 번뇌와 정신적 자각, 그속에서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본다는 말이다. 그리고 반성이 깊어질 때 비로서 강한 신념이 생기고 마음의 역사에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이땅의 많은 사람들과 다음 세기 한국의 진실된 번영을 창조할 수 있는 올바른 경제관은 무엇인지, 그 시대를 열어가는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전기용어사전

series 직렬(直列) ① 회로부품을 그 한 끝을 다른 회로 부품의 한 끝에 접속하여 전류에 대해 단 하나의 통로를 주도록 하는 것.

② 전지에서 몇 개의 셀을 접속하는 방법의 하나로, 한 셀의 (+)단자를 다음 셀의 (-)단자에 접속하여, 각 셀의 기전력이 모두 가산되도록 하는 것.